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불

무산스님

원증국사 '甘露心'

국사의 법명은 보우(普愚), 법호는 태고(太古), 시호(諡號)는 원증(圓證), 속성은 홍 씨이다. 고려 충렬왕 27년(1301)에 익화현(益和縣) 지금의 경기도 양평군 양근에서 태어났다.

13세에 화암사의 광지 선사에게 속발한 국사는 19세 때에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로 용문산에서 참구하였다. 26세에는 화엄학과 여러 경전을 공부하여 그 깊은 뜻을 깨달았다. 그러나 국사는 탄식하여 말하였다. "이것도 전제(前提) :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밧으로써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란 뜻일 뿐이구나. 옛날의 조사님들은 높은 뜻을 세워 일이 거칠지 않았는데 어찌 나만 깨달지 못하는가" 하시고 곧 모든 인연을 끊고 용맹정진하였다. 수행처를 성서(城西) 감포사로 정한 국사는, 마음과 육신이 나약하고 게을리하여 큰일을 성취하지 못할 바에는

부처와 조사 그리고 산하까지도, 일이 없이 모두 삼켜 버렸네.

이후 불각사에 계시면서 <원각경>을 읽다가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리면 그것을 부동(不動)이라 한다'는 어구(語句)에 이르러 모든 지해(知解)가 없어졌으며, 또한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조주 선사의 '무(無)' 자를 보았으나 마치 쇠못처럼 입으로 씹는 것 같았다. 이에 두 가지의 의심을 깨뜨릴 수가 없어 매단원(梅檀園)이란 토굴에 들어가 다시 곡기를 끊고 정자불(正字佛)에 들어갔다. 무인년 1월 7일 새벽에 까마귀 울음소리를 듣고 확립대오하였다.

고불각(古佛覺) : 변함없는 부처님의 법

趙州古佛老(조주고불로) 坐斷千聖路(좌단천성로) 吹毛而透骨(취모우투골) 通身無孔竅(통신무공규)

돌아보면 밝은 자취도 없고 본다는 것도 이미 고요하여라

차라리 고행하다가 죽는 것만 못하다 하시고 두타행에 들어갔다.

7일째 되는 날 저녁에 선정삼매에 들어 있는데 푸른 옷을 입은 두 아이가 나타나 한 아이는 병을 들고 한 아이는 잔을 받들어 더운물을 조금 따라 국사에게 권하였다. 국사는 그것을 받아 마시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

감로심(甘露心 : 맑고 깨끗한 마음)

一亦不得處(일역부득처) 踏破家中石(타파가중석) 回看破跡(회관파적) 看者亦已寂(간자역기적) 了了圓陀圓(요요원타타) 玄玄光輝輝(현현광사사) 佛祖與山河(불조여산하) 無口悉香都(무구실탄국)

하나도 얻을 것 없는 곳에서, 집안의 돌을 모두 밟았네.

돌아보면 밝은 자취도 없고, 본다는 것도 이미 고요하여라.

분명하고 동글이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는데, 그윽하여 광명은 빛나네.

眞乘絕滯(호토절잠종) 刹身歸子露(변신사자로) 打破(타파) 擘後(타파노관후) 淸風吹太古(청풍취태고)

조주 옛 부처가, 앉아서 천성(天聖)의 길을 끊고

취모리(吹毛)의 검(劍)을 들어대며, 운몽에 빈틈이 없네.

여우와 토끼는 자취도 없고, 몸을 뒤쳐어 사자가 나타났네.

분명한 관문을 부순 뒤에, 맑은 바람이 태고암에 불어오네.

국사의 깨침은 마치 산수(山水)와 백운(白雲) 그대로이다. 국사의 선동(禪堂) : 깨침의 등불은 온 천하에 두루 가득히 오늘날까지 비추고 있어 대종장자들과 중생세계의 지표가 되고 있다.

"사람의 목숨은 물거품처럼 빈 것이어서, 80여년이 볼 꿈 속 같았네. 죽음을 이르러 지금 가족부대 버리노니, 한 바퀴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 가네" 라는 열반송을 남기시고 우왕 8년(1382) 입적하였다.

■경주 해회선원 회주



해운정사와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을 경하고 있는 진제 큰스님은 출·재가를 막론하고 간절히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외도 법당을 나누고 공부길을 정경해 주신다.

진제스님은? 1934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다. 1954년 불합 조계종단의 초대 종정을 지낸 설석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한 후 1957년에 봉도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26세 때인 1959년에 한국 스님의 회상에서 '항엄상수화(恒嚴上樹話)'를 화두로 받아 2년 동안 공부했다. 드디어 28세 때 가을에 화두 관문을 풀고 한국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이어 '일면불 월면불(日面佛 月面佛)' 화두를 5년 정진 끝에 타파했다. 이후 34세가 되던 해인 1967년, 하인거 해제 법회가 열리는 묘관음사 법당에서 한국 스님과 법거량이 있었다. 여기서 한국 선사로부터 입제 정맥의 법명으로 부촉 받으시고 전법계를 받는다. 이로써 스님은 경허·혜월·운봉·한국 선사로 이어지는 법맥을 잇는다.

1971년 선가의 관례에 따라 한 회상을 여니 그곳이 바로 해운정사다. 보다 많은 사람을 선(禪)의 길로 이끌고자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선방을 연 것이다.

1994년에는 동화사 금당선원의 조실로 추대되어 지금까지 오직 한길로 남자들을 제정하고 있고, 1996년부터는 조계종 기초선원의 조실을 겸하는 등 오로지 선 수행 풍토 진작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나”를 잠재우는 일이 참선



가까이서 뵈 큰스님

진제스님 (부산 해운정사 조실)

저저거리가 끝나는 곳, 아니, 산이 세상 사 시름에 겨운 사람들을 위해 허리 구부러 가슴을 열어놓은 곳, 그곳에 해운정사가 있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수신자락, 해운정사 당우의 푸른 기와는 또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었다.

발 아래로 해운대 앞바다가 겨울 햇살을 받으며 몸을 뒤치고 있다.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오는 파도. 무상(無常)한 모든 '존재'의 '존재 방식'도 저와 같으리라. 특히 요즘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그렇다. 번뇌 망상이라는 파도의 격랑 속에서 떠밀리듯이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현대인이다.

선불장(禪佛堂). 부처를 보는 곳이라는 말이다. 지금 해운정사도 바로 그런 곳이다. 상선원에는 30명의 스님, 하선원에는 50명의 재가 불자들이 진제 큰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 삼매에 빠져 있다. 동안거가 끝나는 날, 이들 중 몇명이나 부처로 환희지는 모를 일이지만, 지금 모습 그대로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최소한 화두를 들고 있는 그 순간 만큼이라도 세상 모든

사비 분별을 떠나 있으니까, 새해를 핑계삼아 큰스님께 한 말씀 청해 본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에 새해라는 마디지음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만, 그렇게 해서라도 희망의 웃을 갈아입는 게 중생심이 아닌까?

눈 속의 매화나무 꽃봉우리 피려 향이요 / 질질마다 아이들은 색동옷 입고 뛰어 놀이

그냥 새해 먹담을 청해 본 것인데, 큰스님께서는 무지형이의 귀를 한참이나 끌어 올려 놓으신다. 자연 그대로가 부처님의 진리거늘, 따로 구할 것이 있겠느냐는 말씀으로 새겨본다. 엄동설한도 엄연한 사실이요, 그 속에서 매화꽃 봉우리가 봄을 준비하는 것도 자연의 섭리다. 색동옷 입고 뛰어놀 일만 남은 셈이다. 이것이 큰스님께서 전해주시는 2002년 새아침의 '소식'이다. 눈발에 아이처럼 뛰어놀기, 선(禪)이란

어쩌면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일이 쉽지 않다. 이미 '어린'이 된 자, '아이'처럼 노는 일에 서를 수밖에 없다. 예로부터 선사들의 어법은 짓궂다. 일상 어법을 비틀어버림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접근 금지시킨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 접근이 불가능할 수록 오히려 논리적이 되는 것이 또한 세상 사람들의 버릇이다. 이렇게 해서 선(禪)의 길은 또 아득히 멀어지고 만다. 때론 비밀스런 그 무엇으로 보이기도 한다. 정말 그럴까?

습니다." 선 대화에 대한 큰스님의 변이다. 그렇다면, 왜 선인가? "현실의 삶은, 특히 물질 문명이 독세한 오늘날 인간의 삶은 출세를 위한 달을 박질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을 느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면 세계가 개발되지 않으면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사 사람의 심성에 부처님의 참 지혜가

“깨달은 경계가 일상에서 그대로 살림살이가 되면 어떤경우든 다툼 없어요”

"화두란 앉아서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허투허투의 생활 가운데, 일을 하는 가운데 근본 당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일심(一心) 중에 있어요. 이걸 알면 먼 데서 구하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화두 들기. 이른바 '생활선'이다. 일찍이 큰스님께서는 1971년에 해운정사를 열고 생활선을 주창하시며 선의 대중화를 꾀했다. 요즘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시민선방의 기틀을 이미 30년 전에 닦으신 것이다. "선(禪)이 몇몇 스님의 전유물일 수는 없

현전한다면, 세간법이 곧 부처님의 진리에 부합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처가 불국토지요. 이런 세상, 이런 삶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꾸준히 닦아나간다면 모든 갈등과 불안이 불바람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일월같은 지혜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가버어 여깁니다. '나'를 알세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Advertisement for '성불 조각원' (Sungbul Joagwon) featuring various Buddhist statues and a large Buddha image. Text includes: '목조각에 장인의 혼이 깃든 작품', '성불 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연 합니다.',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문의전화: 033-263-1102 •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